

A-9. 치주질환이 없는 청년의 치은연상 치면세균막 및 치은연하 치면세균막에 존재하는 치주질환 관련 병원성 세균의 분포 양상에 관한 연구

김지연*, 국중기, 성진호, 김학숙, 김병옥
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

이 연구는 치주질환이 없는 성인에서 치은연상 및 치은연하 치면세균막에 존재하는 치주질환 관련 병원성 세균의 분포양상에 관한 것이다.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에 재학중인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학생들 중 치주질환이 없는 남녀 20명을 선별하였다. 상하악 구치부와 전치부에서 각각 한 치아를 대상으로 멸균된 치주과용 큐렛을 이용하여 치은 연상 및 치은 연하 치면세균막을 채취하였다.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이용하여 *Actinobacillus actinmycetemcomitans*, *Porphyromonas gingivalis*, *Bacteroides forsythus*, *Fusobacterium nucleatum* 등 총 4종의 세균의 존재 유무를 관찰하였다. 그 결과 *Bacteroides forsythus*와 *Fusobacterium nucleatum*이 다른 2종에 비해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. 또한 *A. actinmycetemcomitans*와 *Fusobacterium nucleatum*은 남자의 구치와 전치 모두에서 여자보다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, *Porphyromonas gingivalis*는 구치부의 경우 여자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.

이 연구는 한국인의 정상 성인에서 치면세균막 내 치주질환 관련 세균의 분포양상에 대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, 본 조사에 응하였던 학생들을 꾸준히 연차적으로 추적하여 초기 치주질환 병소가 생겼을 때 치면세균막 내 세균의 분포양상을 정상일 때와 비교 분석하면 초기 치주질환에 깊이 관여하는 세균을 동정할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